

짐노페디^o

본 적 있니

방금 죽은 짐승의 눈동자 같은 것

한적한 골목길에서

쌩쌩 지나는 차들 있지

그러나 너와 내가 마주 서 있는 것

현대물산과 삼성인쇄소 사이에서

평화와 공포는 한 곳 차이지

네가 눈을 가렸을 때,

나를 보호하는 손길과

애써 보지 않으려는 풍경 안에서

다정과 기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

나는 네 마음을 이해하지

집으로 오는 길목에서 어떤 여자는

털이 다 빠진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

제 집을 앞에 두고 자꾸만 서성거렸지

너도 언젠간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

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서성거렸던 나처럼

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

잔뜩 취해 골목에 쪼그려 앉았던 저 사람처럼

나는 보았기 때문에

널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한다

죽은 짐승을 지나

그런 여자를 지나

털이 다 빠진 고양이를 지나

골목에 쪼그려 앉았던 사람을 지나

결국 나를 지나

o Erik Satie, 3개의 짐노페디.

평화와 공포는 여기로 온다
한순간에 드러나는 살처럼
수건 한 장 걸친 알몸처럼

나는 네 마음을 끝내
다 이해하지 못하고